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이꾸노조선초급학교 교원집단 집계작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전국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 우리 학교에는 련일 교육회 리사, 학부모, 졸업생, 지부일군들이 소독품과 소독액이며 마스크를 날라다주었다.

또 청상회에서, 오사까부분부 관하 중급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어느 학부모는 혼자서 1,500 장의 마스크를 가져와주었다.

그러나 새 학년도가 시작되어 휴교조치가 연장되면서부터 《감염》의 위협은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 동포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까지도 용납없이 밀려왔다.

그러던 4월 7일.

그날은 하루밖에 없는 학생 등교날이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오전수업이후는 하교할 차비를 서둘러야 했다.

다음날부터의 휴교기간에 줄 과제, 새 교과서, 학교통신들을 배포하다나니 선생님들은 여간 바쁘지 않았다.

그럴 때였다.

니이가다에 거주한다는 어느 일본사람한테서 교장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듣고보니 우리 학교 전체 학생원아들 197 명분의 마스크를 손작업으로 만들어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교장선생님은 니이가다에 우리 학생원아들을 위하여 마스크를 만들어보내줄 만큼 인연깊은 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손작업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준다니 너무도 고마운 반면에 어찌서 우리 학교에만 보내주자고 하는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도 답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 일본사람은 어린이식당(여러 사정으로 외롭게 사는 아이들에게 《불란티어》들이 식사를 마련해주는 식당)의 경영자라고 한다. 그분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할뿐 다른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날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20일, 마스크가 학교에 왔다.

197 개의 봉투에 정히 짤 마스크에는 한장한장 따뜻한 메세지가 붙어있었다.

《서로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하나, 코로나에 지지 말자!》

알고보니 어린이식당 경영자는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어느 학부모와 구면인데 그에게서 일본행정당국이 사이다마학교에만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 《마스크》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손작업으로 거의 200 장에 가까운 마스크를 만들자니 얼마나 로력과 시간이 들었겠는가.

《어려울 때 국적이나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도와야지요.》

감사의 전화를 건 교장선생님에게 경영자가 한 말이였다.

우리 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용납 못할 차별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물품인 마스크 하나에도 그 더러운 본심을 드러내였다.

하지만 하나하나 손작업으로 만들어 보내준 어린이식당의 마스크는 유치반원아, 저학년생, 고학년생들에게 알맞춤한 크기로 만들어져있었으며 또 별무늬, 딸기무늬 등이 새겨져있었다.

그 이튿날 학생원아들 가정에 교직원들이 직접 마스크를 가져다주었다.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보내고있지만 교원들은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면서 교사에, 운동장에 학생들의 천진란만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칠 날을 그려보고있다.